

“진도를 살리자”...전남도, 진도 방문·농특산물 구매 운동 나섰다

세월호 여파 관광·특산물 수익 급감...900여억원 피해 도 단위행사 진도에서...추석선물 구매·소상공인 지원도

전남도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진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도산 농수특산물 구매와 진도 방문하기 등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수산물 판매에서부터 관광 수입까지 급감하면서 피해 규모가 9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등 진도 경제 전반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는 사건 초기 사고 해역 기름 유출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진도 관광여행 자체 방송 등에 따라 진도 특산품이 반송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50% 넘게 줄어 관광업계, 특산품점, 낚시점, 숙박업소와 식당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종자 수색 중 야간 조명탄 장기간 발사로 꽃게, 멸치, 오징어 등이 잡히지 않아 어업인들 역시 시름에 잠겨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진도 농수산 특산물 구매와 진도 방문하기 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진도 농수산 특산물 구매운동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 단체 직원 등이 추석맞이 선물을 진도산 특산품으로 보내기로 하고, 8월 중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도 연계해 판매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가 여름 휴가를 희생자 유족 위로와 자원봉사, 진도 관광명소 탐방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도 단위 행사는 진도군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어려운 진도군민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과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협 등에서 자금 대출 시 3% 이자 중 2%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는 지난 18일 개최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각 시·군에서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기름 유출 및 마을 어업 등 직접적으로 약 13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간접적으로는 연안어업, 낚시업 등에서 25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진도군의 청정 이미지 훼손과 경기침체가 가속돼 진도군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 LA교민 문선영·유지현씨가 20일 국회 본청 2층 정문 앞 계단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LA교민들의 서명지를 세월호 유족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양도액 축소 신고 年 20조원

다운계약서·신고 누락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일 국세청이 '2013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한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7814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3742억원 많은 56조155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18조

4752억원으로, 이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 확정된 23조5213억원에 비해 5조461억원 적었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3948건의 경우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총 6조639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는 14조2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고된 금액에 비해 8조1784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과세미달 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것이다.

부동산 양도세 미신고·축소신고 규모는 그 이전에도 20조원대 안팎을 기록했다. 2011년의 경우 과세대상 9조7950억원, 과세미달 10조8822억원 등 축소 및 미신고액이 총 20조6772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과세대상 12조9059억원, 과세미달 6조6464억원 등 총 19조3523억원이었다. 매매가 축소신고는 양도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에서도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원봉사자 1천만명 시대 광주시, 인구대비 등록률 30% 전국 1위...활동률은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포털의 등록회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동안 국제행사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모집에 주력해온 광주시는 등록률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나, 실제 활동률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모집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에 치중했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자원봉사정보시스템 포털인 '1365 자원봉사'(www.1365.go.kr)의 등록회원 수가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1008만762명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대비 등록률이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인구 147만2910명인 광주의 자원봉사 등록회원은 모두 43만6284명(30%)을 기록했으며, 등록률에서 대전(23%), 부산(22%), 대구(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은 등록회원은 도민 190만7172명 중 36만263명(19%)로, 전국평균인 17%를 겨우 넘어섰다. 가입 자원봉사자의 실제 자원봉사 활동률(연 1회 이상 자원봉사 참여자 비율)은 울산이 22%로 가장 높았다.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가장 높은 광주시는 실제 활동률이 15%로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서울(12%), 부산(14%)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광주는 자원봉사자 회원모집에서 허울만 좋을 뿐 실속은 없는 셈이 됐다.

실제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153만2811명)은 자원봉사 등록률은 23%로 낮았지만, 활동률과 인원은 20%(6만9570명)로 광주(6만5840명)보다 많았다.

광주시는 민선 5기내내 대대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을 펼친 끝에 등록률 전국 1위라는 실적을 냈지만, 실제 활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행정 시스템을 손질해야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자원봉사정보시스템은 지난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이후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됐으나 2011년부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포털 서비스도 시작했다. 자원봉사정보시스템 등록회원 수는 지난 2008년 439만 명에서 연평균 100만 명 이상 증가, 작년 말 기준 953만 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 누적인원 1천만 명을 넘겼다. 봉사자의 연령대는 14~19세가 32.9%로 가장 많고 40대(17.7%)와 50대(14.9%)가 뒤를 이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9.8%와 7.5%에 그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기료 납부기한 5차례로 연장 한전 “연체료 불이익 감소 840만가구 혜택”

전기요금 인터넷·모바일 청구 방식으로 고지받아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소비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 납부기한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른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납부 기한으로 삼을 수 있는 날씨가 매일 이틀에 국한돼 있었다. 전기요금을 매일 25일까지 내기로 정해 놨다면, 그로부터 다섯 뒤인 30일까지가 추가 납부 기한이 됐다. 이때까지 놓치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바뀐 제도는 납부 기한을 다섯 간격으로

매일 5차례까지 허용한다. 매일 25일을 납부일로 정했을 경우 당일 15일과 20일, 25일, 30일, 그다음 달 5일까지 총 5번의 납부 기한이 생긴다. 기한을 놓쳐 요금을 더 내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든다.

대상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소비자들

에 국한된다. 하지만 지로요지를 들고 은행 등을 찾아가 요금을 내는 가구가 점차 줄고 IT를 활용한 전기료 납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다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은 연간 84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밝은광주안과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분 야 : 간호조무사, 검안사, 코디네이터(데스크,상담)
조 건 : 성별, 나이, 경력 무관
담당자 : 062) 351-9934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덕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밝은광주안과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망은 있는데 공사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 대출한도는 최고 지원
-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기성고대출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이성 안두 경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전우 하현 춘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연세 장(예)금 금리 연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 양림지점 652-9203 | 주유사업소 720-2880 | 월산지점 364-7557